

## 지역 소식

## “이스라엘을 집합한다”

코로나19 팬데믹 속에서 활발히 진행되는 성전 및 가족 역사 사업

“성전에서 예배하는 것이 지금으로서는 불가능하기에, 가족 역사 탐구와 색인 작업 등의 가족 역사 사업에 더 많이 참여하시기를 권유합니다. 성전과 가족 역사 사업에 더 많은 시간을 들일 때 주님의 음성을 듣는 능력도 커지리라는 것을 약속드립니다.”

— 러셀 엠 넬슨 회장, “그의 말을 들으라”, 2020년 4월 연차 대회

**코**로나19의 확산으로 2월 말에 교회가 폐쇄되면서, 서울 성전도 산 자를 위한 인봉 의식만을 진행하는 제한적 운영에 들어갔다. 상황이 나아지리라는 기대와는 달리 3월 25일에는 제일회장단의 지시에 따라 서울 성전을 포함하여 전 세계 모든 성전의 운영이 완전히 중단되었다. 성전에서 봉사하는 모든 선교사들이 귀환하거나 이동해야 했고, 봉사자들도 더 이상 성전에 출입할 수 없게 되었다.

이후 한동안 서울 성전은 성전 직원들의 교대 근무와 성전 회장단 내외의 노력으로 성스럽게 보호되고 관리되어 왔다. 그러던 지난 5월 7일, 제일회장단은 서한을 통해 “단계적 성전 운영 재개” 소식을 전했다. “2020년 5월 11일 월요일 이후로 이 선별된 성전에서는 이미 엔다우먼트를 받은 회원들을 위해 산 자를 위한 부부 인봉 의식을 집행할 수 있습니다.”

2월 말에 운영되던 방식과 유사하게, 서울 성전은 지난 5월 18일부터 산 자를 위한 부부 인봉 의식을 제한적으로 집행할 수 있게 되었다.

## 영원한 부부로서 인봉되기까지

성전 운영이 완전히 중단되었던 2개월이 채 못 되는 그 시간은, 결혼하여 새로 가족을 꾸리는 젊은 청년들에게 기약 없는 기다림의 시간이었다. 몇몇 부부는 결혼식의 모든 일정을 미루어야 했고, 어떤 부부는 혼인 신고만 겨우 한 채 성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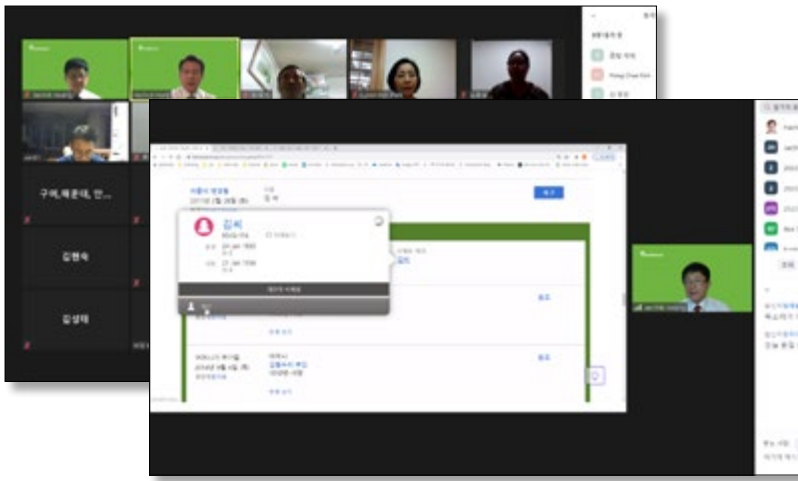
위 사진: 기다림 끝에 성전에서 인봉된 변치규 형제와 박장미 자매 부부의 모습

인봉과 하례식 등 꿈꾸었던 모든 것들을 연기해야 했다.

울산 지방부 변치규 형제와 박장미 자매 부부는 원래 지난 3월 27일에 서울 성전에서 영원한 부부로 인봉되기로 되어 있었다. 모든 준비를 마치고 그날을 고대하던 이 두 젊은이는 예정된 인봉 날짜로부터 단 이틀 전에 예상치 못한 연락을 받았다. 3월 25일부터 성전 운영이 중단되니, 인봉 의식을 무기한 연기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박장미 자매는 당시를 이렇게 회상한다. “그동안 잘 준비했고 모든 게 순조로워 보였기 때문에 아쉬움이 컸습니다. 하지만 조금 더 겸손한 마음으로 다시 생각해 보니, ‘이 또한 주님께서 뜻하신 게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5월이 되어, 단계적으로 성전이 다시 열렸습니다. 마침내 받게 된 인봉 의식에서, 인봉자께서 우리 부부의 영혼을 축복해 주고 우리가 주님의 권세로 인봉되고 있다는 느낌이 강하게 와 닿았습니다.”

사실, 고작 1년 전인 2019년 5월 이전까지는 성전 결혼에 앞서 일반 결혼을 한 부부는 1년이라는 시간을 대기해야만 성전에서 인봉될 수 있었다. 만약 이 정책이 지속되어 왔다면 코로나19 사태 동안 법적인 결혼을 한 부부들은 내년까지 1년을 기다려야만 부부로서 인봉이 가능했을 것이다. 하지만 놀랍게도 2019년 5월 6일에 제일회장단은 서한을 통해 일반 결혼 후 인봉 기간까지의 1년 대기 정책을 중단한 바 있었다. 이로 인해 성전이 닫힌 기간 동안 일반 결혼을 한 부부들이 성전이 다시 열리자마자 바로 영원한 부부로서의 축복을 누리게 되었다.

또한 여전히 인봉을 받기 위해 기다리는 부부도 있다. 창원 스테이크 김시훈 형제와 김지은 자매 부부다. 이들은 3월 13일에는 성전 인봉을, 14일에는 교회에서 하례식을 하기 위해 준비했으나, 교회와 성전이 닫히는 바람에 어떤 것도 진행하지 못한 채 법적인 부부로서 생활하고 있다. 더욱이 김 형제가 군 관련 일에 소속되어 코로나19 기간 동안 먼 지역으로 이동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아 여전히 기다리는 상황이다. 김지은 자매는 그 아름다운 순간을 고대하며 부부로서 잘 준비하고 있다. “여전히 우리는 성전에 가서 영원한 부부가 될 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계획하신 영원한 가족 인봉에 대한



왼쪽 사진: 가족 역사부의 가족 역사 탐구 온라인 훈련 모임 사진, 오른쪽 포스터 이미지: 매주 목요일과 금요일에 진행되는 서울 동스테이크 가족역사의 날 캠페인 안내 포스터

계획을 이해하기 때문에 이 순간들도 소중하게 여기고 서로 배려하고 사랑하는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가 더 잘 준비될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셨다고 생각합니다.”

김치원 성전 회장은 이렇게 말한다. “처음 성전 운영이 중단되었을 때, 성전에서 봉사하는 선교사님들이 귀환하거나 이동을 가야 한다는 사실에 마음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물리적이거나 영적인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의 시간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다시 주님의 집에서 자유롭게 만날 수 있는 날이 올 것이며, 그때를 위해 우리가 잘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 가정에서 행해지는 가족 역사 사업 참여

가족 역사부 책임자인 홍하식 형제는 코로나19 사태가 시작되기 전과 시작된 후의 가족 역사 사업 참여 현황에 대해 이렇게 전한다. “코로나로 인해 성전 운영이 중단되면서 성전 의식을 위해 제출하는 회원 수는 자연스럽게 줄었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색인 작업에 참여하는 회원과 비회원 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했습니다. 전 세계의 수많은 사람들이 지난 4월 연차 대회에서 코로나19 펜데믹 동안 가족 역사 사업에 더 많이 참여하라는 선지자 러셀 엠 넬슨 회장의 가르침에 귀 기울이고 이 일에 참여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가족 역사부는 회원들이 코로나19 속에서도 가족 역사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온라인 훈련 모임을 마련했다. 이미 코로나19 사태 이전에도 무료 전화와 인터넷을 통해 회원 및 비회원의 가족 역사 사업을 지원해 왔던 가족 역사부는 회원들이 각 가정에서 선지자의 권고에 따라 성전 및 가족 역사 사업의 기쁨을 경험할 수 있도록 ‘가족 역사 탐구 온라인 훈련 모임’을 5월과 6월에 걸쳐 매주 일요일 저녁에 한 시간 가량 진행해 오고 있다. 5월 한 달 동안 패밀리 트리 등 패밀리서치 사이트 이용 방법을 가르쳤으며, 6월 중순인 현재는 한자와 제적 등본, 족보를 쉽게 읽고 이해하는 법 등을 가르치고 있다.

5월에는 총 400명이 넘는 회원들이 전국에서 이 화상 회의에 참석했고, 6월에는 2주차까지 200여 명 이상의 회원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평소 가족 역사 사업을 하면서 생긴 질문에 답을 찾고 실질적인 도움을 얻었다고 소감을 전했다.

이 모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서울 스테이크 이혜수 자매는, “교회에서 가족 역사 사업 관련된 모임을 더 이상 가질 수 없게 되었을 때 여러 회원들의 열의가 꺾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매주 가족 역사부의 온라인 모임을 통해 다양한 회원들을 만나고 많은 정보를 배우면서, 회원들은 또 한번, 어쩌면 이전보다도 더 많은 동기 부여를 받고 있습니다.”라고 전한다. 이 자매는 온라인 훈련 모임을 주위에 계속 알리고 다른 이들의 노력을 도우며 함께 간증을 키워나가고 있다.

가족 역사부뿐 아니라 단위 조직 자체의 노력들도 이어지고 있다. 서울 동 스테이크 회장단은 성전 봉사와 가족 역사 사업이 지속될 수 있도록 “가족역사의 날” 캠페인을 열었다. 보통으로 서울 동 스테이크 회원들이 성전에 방문하던 목요일과 금요일 저녁 시간에, 회원들은 각 가정에서 가족 역사 사업을 진행한다. 성전에서 돌아가신 분들을 위해 의식을 받고 의식을 받는 이들을 도왔던 봉사자들은, 이제 가족 역사 사업에 도움이 필요한 분들을 찾고 전화와 온라인으로 이들을 돕고 있다.

지역 칠십인 배동철 장로는 회원들의 노력에 고마움을 표하며 이렇게 전한다. “지난 4월 연차 대회에서 넬슨 회장은, 요즘 상황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축복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지금 선지자를 통해 하고 계신 말씀을 우리가 더 의식적으로 듣고 순종하겠다는 마음을 갖고 주의를 기울일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유혹과 고통과 연약함에 맞설 힘이 더 강해지는 축복을 받게 되시리라는 것을 약속드립니다. 결혼과 가족 관계, 그리고 일상의 일들에 기적이 일어나리라는 것을 약속드립니다. 삶의 폭풍이 더 거세게 몰아쳐도 기쁨을 느끼는 능력이 커지리라는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그분의 말씀을 실천하는 성도들을 보는 것은 참으로 큰 기쁨입니다.” ■

## 엘리아의 영을 배우고 직접 경험함

### 강북2 와드 흥서진 형제(중학교 3학년)

**초**등학교 6학년이 되어 아론 신권을 받게 되자, 아버지는 조상을 위한 대리 침례를 위해 함께 한 달에 한 번 성전에 가는 목표를 세워 보는 것이 어떠냐고 제안하셨다. 아버지는 족보를 보고 패밀리서치에 조상의 이름을 입력하는 방법을 가르쳐주셨고, 우리는 함께 대리 침례 의식도 꾸준히 참여했다.

어느 날, 대리 침례 전에 성전에서 준비 모임을 하면서, 감리자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돌아가신 조상들은 오늘 우리 몸을 빌려 침례를 받게 됩니다. 우리가 이 의식을 대신 받아주기까지 그분들은 수백 년에서 수천 년간 옥에서 고대하고 있었습니다. 대리 의식이 끝날 때 그분들은 ‘옥에서 놓여나’ 기쁨의 찬양을 부를 것이며 이 의식을 대행해 준 우리에게 무한한 감사를 느낄 것입니다.”(교리와 성약 128:22)

이 말씀은 내 가슴을 벅차오르게 했다. 마치 부활의 아침에 그 조상들과 만나게 될 기쁨의 찬 순간이 생생하게 그려지는 듯했다. 이후 나는 더 큰 사명감을 지니고 성전 및 가족 역사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되었다.

교회 선지자들은 자라나는 세대인 청소년에게 “엘리아의 영에 대해 배우고 직접 경험”해 보며, “조상에 대해 연구하고 찾아서 죽은 친족들을 위해 주님의 집에서 대리 침례를 받을 수 있도록” 기술을 활용하는 일에 앞장서라고 분명한 부름을 주셨고 나는 그 권고에 따르기 위해 노력했다.(데이비드 에이 베드나, “자녀들의 마음은 돌이켜질 것입니다”, 2011년 10월 연차 대회)

이 위대한 사업에서 청소년이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음을 잘 이해하신 부모님께서도 또 다른 가족 목표를 제안하셨다. 바로 온 식구가 함께 1만 명의 조상들을 위한 성전 및 가족 역사 사업을 수행하는 것이다. 이 목표를 세운 후 부모님과 나는 약 이천 명 정도의 조상들의 이름을 패밀리서치에 입력하고 그분들을 위한 성전 대리 의식을 수행했다. 최근 청소년이 된 동생 중 한 명도 함께 목표를 향해 더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 나는 청소년 시기를 보내는 동안 삼천 명 이상의 돌아가신 조상을 위한 구원 사업을 완료할 수 있을 것이며, 동생과 곧 청소년이 될 막내까지 각각 삼천 명의 조상을 위해 성전 및 가족 역사 사업을 수행한다면 우리 가족은 1만 명이라는 목표를 이룰 수 있을 것이다.

성전 및 가족 역사 사업을 하다 보면 어려움에 부딪히기도 한다. 처음 족보에서 조상의 이름을 찾기 시작했을 때, 한자를 잘 몰라 인터넷 사전에서 한자를 마우스로 일일이 그리면서 뜻과 음을 찾아 패밀리서치에 입력하곤 했다. 한 사람, 한 사람 입력하는 것이 힘들기도 했지만, 주님께 도움을 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차근차근 노력하다 보니 점점 숙달되어 이제는 한 사람을 입력하는 데 1분이면 될 정도가 되었다.

가족 역사 사업을 하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더는 없어.”라고 느껴지는 순간이 오기도 한다. 나는 그런 순간에 무릎을 꿇고 주님께 길을 열어 주시기를 간구한다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다는 간증을 가지고 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죽은 자의 구원을 위해 이 사업을 마련해 주셨지만, 동시에 산 자에게도 축복을 주시기 위해 마련하셨음을 깨달았다. 나는 이 사업을 수행하면서 개인적인 축복을 풍성하게 받고 있다는 느낌이 든다. 늘 성전에 가고 싶은 소망을 갖게 되었으며 주님의 영을 가까이 느낄 수 있게 되었다.

“각 와드 청소년들이 성전에 가서 돌아가신 분들을 위해 침례를 받고, 또 가족이나 와드 회원들과 협력하여 의식을 행하기 위해 친족의 이름을 제출한다면 청소년들과 교회는 크나큰 축복을 받을 것”이라는 말씀처럼 이 일의 상당 부분은 앞으로 자라나는 세대가 담당하게 될 것이다. 우리 와드 청소년들이 함께 가족 역사 사업에 참여하고 성전에서 대리 침례를 받는다면 얼마나 많은 조상이 기뻐할지, 우리의 마음은 어떤 기분일지 기대가 된다. 나 역시 자라나는 세대로서, 조상을 찾는 일에 앞장서라는 선지자의 말씀을 계속해서 충실히 따르려고 한다.(하워드 더블유 헌터, “성전 참여를 권고 받는 사람들”, *리아호나*, 1995년 5월호)

윌포드 우드럽 회장님께서 “주님께서 계시해 주신 원리 중에, 죽은 자의 구속, 즉 첫째 부활의 아침에, 그리고 해의 왕국에서 아버지와 어머니, 아내와 자녀들을 가족 조직 안에서 만나는 것보다 더 큰 기쁨을 주는 주님의 원리는 없다”고 가르치셨다.(교회 회장들의 가르침: 윌포드 우드럽(2004), 192~193쪽) 나는 이 위대한 사업에 참여함으로써 첫째 부활의 아침에 그리고 해의 왕국에서 사랑하는 우리 가족과 조상들을 가족 조직 안에서 만날 것을 알고 있다. 그날은 상상할 수 없이 영광스럽고 기쁜 날이 될 것이다. ■



새로 부름받은 선교부 회장

# 부산 선교부 킬팩 회장 부부

**새**로운 부산 선교부 회장으로 데이비드 지 킬팩(David G. Killpack) 형제와 그의 아내 하이디 알 킬팩(Heidi R. Killpack)자매가 부름받았다.

킬팩 회장과 그의 가족은 모두 한국과 인연이 깊다. 킬팩 회장은 1979년부터 1981년까지 서울 서 선교부에서 전임 선교사로 봉사했으며 그의 아들인 벤슨 킬팩 형제 역시 2013년 5월부터 2년간 서울 선교부에서 전임 선교사로 봉사했다. 또한 2015년부터 2016년까지는 그의 딸인 헤일리 킬팩 자매가 서울 남 선교부에서 전임 선교사로 봉사한 바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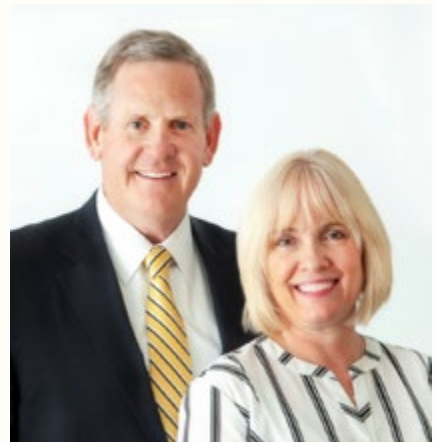
“2017년에 저희 부부는 자녀들과 함께 서울을 방문했습니다. 온 식구가 함께 즐거운 서울 여행을 했지요. 부산에는 한 번도 가 보지 못해서 더욱 기대됩니다. 저희는 한국 사람, 한국의 음식과 문화 그리고 한국어를 정말 사랑합니다.”

킬팩 회장 부부는 코로나19 감염병으로 인해 전세계에 수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혼란스러운 시기이지만, 선교부 회장이라는 특별한 부름을 받은 것에 대해 감사함을 표했다.

“선교부 회장 부름을 갑작스레 제안받았을 때 처음에는 정말 놀랐지요. 하지만 동시에 이 훌륭한 기회를 주심에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부산 선교부에서 한국 성도들을 위해 봉사하는 것이 바로 주님의 뜻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코로나19 감염병 대유행으로 불안정한 시기이지만, 큰 걱정은 하지 않습니다. 한국은 방역에서 뛰어난 성과를 보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덧붙여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가 참된 교회라는 강한 신앙이 있습니다. 선지자 조셉 스미스를 통해 복음이 회복되었으며 러셀 엠 넬슨 회장이 오날날의 선지자임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 계시며, 예수 그리스도는 이 세상의 구주이십니다. 우리는 부산 선교부 회장으로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주님으로부터 영감을 얻고 사랑으로 선교부를 이끌고자 합니다. 부산 선교부의 선교사들과 한국 성도들을 만나 하나 될 날을 고대합니다.”라며 각오와 기대감을 드러냈다.

킬팩 회장은 법학을 전공한 뒤 현재



단독 주택, 타운 하우스, 상업용 건물 등을 짓는 건설업계에 종사하고 있으며 킬팩 자매는 유타 대학교에서 영문학을 전공했다. 킬팩 회장은 스테이크 회장으로 봉사하던 중에 선교부 회장 부름을 받아 2020년 6월에 해임되었으며, 과거에는 고등평의원, 감독, 와드 청남 회장 등으로 봉사했다. 킬팩 자매는 스테이크 초등학교 회장단 보좌, 상호부조회 회장단 보좌, 청년 회장단 보좌 및 와드 상호부조회 회장 등으로 봉사했다. 킬팩 회장 부부는 미국 유타주 드레이퍼 출신이며, 이들 슬하에는 6명의 자녀와 7명의 손자녀가 있다. ■

새로 부름받은 선교사 안내: 5명

(코로나19로 인해 해외로 부름받은 몇몇 선교사들은 국내 임시 선교부에서 봉사를 시작함)



**문병찬 장로**  
서울 스테이크 파주 와드 부산 선교부



**박주빈 자매**  
서울 서 스테이크 부천 와드 부산 선교부



**유창연 장로**  
서울 스테이크 녹번 와드 부산 선교부



**이승규 장로**  
서울 서 스테이크 영등포 와드 필리핀 우르다네타 선교부 (임시: 서울 남 선교부)



**최준민 장로**  
대구 스테이크 구미 와드 오스트레일리아 브리즈번 선교부 (임시: 서울 선교부)

**더** 많은 지역 소식 기사와 사진을 교회 한국 홈페이지에서 볼 수 있으며, 페이스북, 트위터 등 SNS로 공유할 수 있습니다.

- 교회 한국 페이스북 페이지: fb.com/churchofjesuschristkor
- 기사 제보 및 기타 문의(관리 본부): 02-2232-1441(전화),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카카오톡 채널 검색)
- 배부 센터: 080-238-8000